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옥경희**

Dept. Social Welfare, Gwangju Univ.

Associate Professor : Ok, Kyung-Hee

〈Abstract〉

Although increasing number of children are being raised by grandparents these days, little research exists on the development of the children in this arrangemen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by comparing academic achievement and general classroom and school behaviors of the children in grandparent families with those of their peers from other types of families such as two-parents, single parent, kinship and institution care, and single parent with grandparent(s). Three hundred and twenty four 2nd graders and two hundred ninety eight 5th graders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did quite well, relative to children in traditional families where two parents were present.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were significantly worse in school achievement and study habits than children in traditional nuclear families. Girls obtained higher scores on school achievement and study habits whereas they showed lower scores on problem behaviors than boys. There was also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gender of child in school achievement.

▲주요어(Key Words) : 조부모-손자녀가족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학교생활(school behaviors), 학업성적(school achievement), 또래관계(peer relations), 학습습관 (classroom behaviors),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

1. 서론

현대의 아동들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가족구조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을 낳아준 양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양육을 제공받는 아동들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이나 양육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 의해 양육을 받는 조부모-손자녀가족¹⁾ 비율도 증가추세

를 보이면서 조부모-손자녀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아동 중 조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30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살펴보자면 1970년 3.2%로 나타난 비율이 1980년에는 4.6%로 변화하였으며, 2000년에는 6.3%를 차지

caregivers),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보호하는 조부모(custodial grandparents), 조부모가족(grandfamily) 등의 개념들은 모두 손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없음을 강조하는 세대를 건너 뛴 가족(skipped generation families)이나 2세대부모(second-generation parenthood)라는 표현 역시 조부모-손자녀가족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조부모-손자녀가족은 Minkler와 Fuller-Thomson (1999)이 정의한 개념을 이용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모 없이 손자녀 양육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뜻한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선도연구자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옥경희 (E-mail : yundoh@gwangju.ac.kr)

1) 조부모가 자녀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조부모-손자녀가족을 지칭하는 개념은 다양하다. 부모로서의 조부모(grandparents as parents), 양육자로서의 조부모(grandparents as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lass & Huneycutt, 2002; Kropf & Burnette, 2003). 부모의 약물남용이나 이혼, 가족의 유기 혹은 사망²⁾이 미국에서의 조부모-손자녀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들로 꼽히는데(Bowers & Myers, 1999; de Toledo & Brown, 1995; Goodman & Silverstein, 2002; Silverstain & Vehvilainen, 1999; Waldrop & Weber, 2001) 이외에도 미혼이나 부모의 정신질환의 증가는 조부모와 살 수밖에 없는 아동들의 수를 더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다(Glass & Huneycutt, 2002; Kropf & Burnette, 2003).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조부모-손자녀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으며, 양육으로 인한 조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변화를 다룬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조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407,455명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2)³⁾. 조부모-손자녀가족의 비율은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도시나 읍에서의 비율이 4.7%인 반면 읍부에서의 비율은 7.7%로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 조부모-손자녀가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02). 우리나라에서도 조부모-손자녀가족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손자녀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조부모-손자녀가족을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은 조부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양육실태(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성지혜, 2001; 옥경희, 2005; 최해경, 2002)나 조부모의 부담감(권인수, 2000; 김미영, 2002; 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신혜섭, 1999; 옥경희, 2005)이나 심리적 복지(신혜섭, 1999) 그리고 우울(최해경, 2002)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에 대한 국내연구는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다룬 연구가(성지혜, 2001) 유일하다. 미국에서도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을 다룬 연구들은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할 때 연구주제나 논문의 양에서 현저

하게 저조한 실정이다. 조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조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보호경험(Leslie, Landsverk, Horton, Ganger, & Newton., 2000), 학업이나 학교생활(Berrick, Barth, & Needell, 1994; Dubowitz, Feigleman, Harrington, Starr, Zuravin, & Sawyer, 1994; Dubowitz & Sawyer, 1994; Pruchno, 1999; Sawyer & Dubowitz, 1994; Silverstain & Vehvilainen, 1999; Solomon & Marx, 1995),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방법(Dannison & Smith, 2003; Edwards, 1998; Inglehart, 1994; Jones & Hansen, 1996; Smith, Dannison & Vacha-Haase, 1998) 등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을 다룬 연구들의 주 관심은 조부모의 양육이 다른 형태의 양육과 비교하여 아동발달에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집중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학령기 발달을 대표하는 영역인 학업(Pruchno, 1999; Silverstain & Vehvilainen, 1999; Solomon & Marx, 1995)과 문제행동(Jones & Hansen, 1996; Pruchno, 1999)을 포함한 학교생활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조부모의 양육이 손자녀의 학업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 나타내는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연구 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42%가 손자녀들의 학습부진, 주의력부족, 우울이나 발달지체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대답하였다(Silverstain & Vehvilainen, 1999).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들 중 20%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보충수업(remedial education class)반에 들어가 있었고, 12%는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으며, 12%는 평균이하의 성적을 받는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Pruchno, 1999). 조부모의 50%이상은 손자녀들이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집중력 부족, 충동적 행동과 산만함, 강한 고집이나 말을 듣지 않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는데(Pruchno, 1999) 이러한 결과들은 조부모 양육이 손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조부모의 양육이 다른 형태의 양육과 비교하여 아동발달에 더 불리한가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환경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구조의 특성과 아동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부모-손자녀가족과 양부모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아동을 비교한 Solomon과 Marx(1995)는 조부모가족의 아동은 학업성적에서 양부모가족의 아동과의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부모가족의 아동보다는 더 높은 성적을 보였다고 보고한다.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사의 말에 순응하거나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일에서 남아들보다 여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발달에 대해서는 친족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모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다룬 초기 선행연구들은 조부모-손자녀가족을 친족보호에 함께 포함시켜 가족의

2) Glass와 Huneycutt(2002)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족의 증가는 4D 현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4D란 약물(drugs), 이혼(divorce), 유기(desertion) 그리고 사망(death)을 의미한다.

3) 보사연 사회정책연구실장 김승권의 도움말에 의하면 현재까지 분석되어 있는 자료에서 가구 내 부모 없이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5세 미만의 아동은 1980년 0.8%, 1990년 1.1%, 2000년 1.2%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2 전국보육실태보고 조사 결과, 전체 아동 가운데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겨진 아이들 비율은 대도시가 1.7%인 데 비해 읍-면의 경우 5.7%에 이르렀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2002년 발간한 '농촌지역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한 모형개발'이라는 논문에서 경북 농촌 지역의 보육서비스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 중 할머니의 양육을 받고 있는 이의 비율이 5~27.7%로 면단위 이하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성과 아동발달을 살펴보았다. 부모가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기관보호를 선호하던 미국사회는 친족보호의 장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친족보호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양육을 담당하는 친족 중에서 조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친족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추세를 감안한다면⁴⁾(Dubowitz et al., 1994), 친족보호를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Berrick, Barth, & Needell, 1994; Dubowitz & Sawyer, 1994; Inglehart, 1994; Leslie et al., 2000; Sawyer & Dubowitz, 1994) 통하여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족보호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 역시 아동의 학교생활 중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보고한다(Dubowitz & Sawyer, 1994; Dubowitz et al., 1994; Sawyer & Dubowitz, 1994). 아동의 학업을 중점적으로 다룬 Sawyer와 Dubowitz(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5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친족보호 아동들 30% 정도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어 특별수업을 제공받고 있었으며, 학령 전 아동의 42%와 초등학교 아동의 40%는 보충수업을 통해 학업을 도움받아야 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유급을 경험한 친족보호 아동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는 34%였으나, 상급학교인 중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63%로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과목별 학업성적을 살펴본 결과, 언어와 수학의 평균이 반 평균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았다. 읽기, 쓰기, 단어, 수리, 사회, 과학과목에서 '매우 잘한다'라고 평가받은 친족보호 아동의 비율은 1%에서 3%에 지나지 않았으나, 읽기, 쓰기, 단어와 수리에서는 반 이상이, 사회와 과학에서는 3분의 1정도가 '못하는 편'이거나 '매우 못한다'로 평가받았다.

친족보호 아동들의 학교생활은 학업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Dubowitz & Sawyer, 1994). 교사들은 수업시간이나 학교에서의 행동에 대해 친족보호 아동들의 63%를 보통이나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규칙준수나 학습동기는 또래들과 비슷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학습습관의 항목에서 53%의 아동이 또한 주의집중력에서는 47%의 아동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생활적응에서 가장 나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교사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였다. 친족보호 아동의 학교생활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남아들보다 여아들의 학교생활적응력이 더 높았고, 문제행동 점수는 낮았다.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bowitz et al., 1994).

친족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다른 형태의 보호보다 더 불리한 것을 특수교육을 받는 비율로 비교한 결과(Sawyer & Dubowitz,

1994), 부모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비율이 10%에서 16%로 제일 낮았고, 그 다음이 친족보호 아동의 비율로 30%였다. 이러한 수치는 대리양육자의 보호(foster care)를 받는 아동들의 37% 보다 낮고,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maltreated) 아동들이 보인 57%- 67% 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친족보호가 대리양육자에 의한 보호보다는 아동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들에서도 제시되고 있다(Berrick, Barth, Needell, 1994; Inglehart, 1994). 친족보호와 대리양육자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문제행동을 보인 비율이 친족보호 청소년에게서는 20%였으나 대리양육자의 보호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25%를 보였다(Inglehart, 1994). 사회적응력에서도 친족보호 아동이 한부모가족의 아동보다는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am, Ensminger, Turner, 1977).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친족보호가 대리양육이나 한부모가족 보다 아동발달에 더 긍정적인 환경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염려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과 불안수준을 조사한 연구만이 소개되었다(성지혜, 2001). 연구결과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은 비교적 높았으나 불안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은 성적과 교사의 지지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조부모-손자녀가족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성적이나 학교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우선되어야 국외 연구결과들과 비교, 분석작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발달특성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다른 보호형태를 받고 있는 아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발달에 대한 특성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수집은 그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 혹은 사회적 차원의 효과적인 노력과 지원방향 설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이 다른 보호형태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동들과 비교하여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수학, 과학, 그리고 국어 교과목의 수행능력은 다른 가족구조 집단의 아동과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은 다른 가족구조 집단의 아동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가?

4) 친족보호를 받는 52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Dubowitz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을 담당하는 친족의 비율은 할머니가 47%, 이모나 고모가 29%, 기타가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도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소년소녀가장의 비율이 40%(진선재, 1997)에서 48%(이윤경, 199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3> 가족구조와 학교생활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 위치한 19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675명(남: 352명, 녀: 323명)과 5학년 학생 684명(남: 349명, 녀: 335명), 총 1,362명을 1차대상에 포함시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2학년과 5학년을 대상학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학령기를 저학년과 고학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집단의 가운데 위치한 2학년과 5학년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표 1> 1차 집단의 가족구조별 아동수 (N=1362)

가족구조	빈도	백분율	가족구조	빈도	백분율
조부모-손자녀 가족	79	5.8	조부/부가족	4	.3
양부모가족	863	63.4	조부/모가족	1	.1
양부모와 조부모 가족	263	19.3	조모/부가족	15	1.1
친족가족	15	1.1	조모/모가족	15	1.1
시설	12	.9	조부모/부가족	17	1.2
편부가족	22	1.6	조부모/모가족	8	.6
편모가족	32	2.2	무응답	17	1.2

1차 집단을 대상으로 가족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조부모-손자녀가족의 아동은 모두 포함시켰고 다른 가족구조의 아동들은 담임교사에게 무작위로 50% 내외의 아동들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2학년 324명(남:158명, 녀:166명)과 5학년 298명(남:146명, 녀:152명)으로 총 622이다. 연구대상 아동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구조에 대한 정보가 <표 2>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교우관계, 학습습관,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학업성취는 과목별 수행도와 학업성적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과목별 수행도 측정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적을 차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이 추천한 수학,

과학, 국어의 3과목을 선정하였다. 대상아동의 과목별 수행도는 담임선생님이 각 과목에 대한 수행능력을 7개 척도로 분류한 6% 미만, 6-14%, 15-29%, 30-69%, 70-84%, 85-94%, 95% 이상의 한 곳에 표시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학업성적은 7개 척도로 표시된 각 과목의 수행정도를 1점(6% 미만)에서 7점까지의(95% 이상) 값으로 환산한 후, 세 과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연구대상 아동의 가족구조 분포 (N=622)

가족구조	빈도	백분율
조부모-손자녀가족	79	12.7
양부모가족	438	70.4
친족/시설	18	2.9
한부모가족	36	5.8
한부모와 조부모	51	8.2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Walker-McConnell(1988)이 개발한 사회적 유능감과 적응도구(Walker-McConnell Scale of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에서 학급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16문항과 학급에서 보여지는 학교적응 행동 10문항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교우관계는 학급에서 또래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문항으로 구성된 학습습관은 숙제나 학습참여 혹은 규칙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문제행동은 산만이나 공격성 혹은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하여 담임교사는 아동들이 나타내는 행동특성을 1점 '정말 그렇다'에서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응답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 계수 α 는 교우관계가 .92, 학습습관이 .90, 그리고 문제행동이 .87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을 역산으로 처리하여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습습관이 좋으며, 문제행동이 심각하다고 해석된다.

아동의 가족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처음에는 아동이 함께 살고있는 성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 1>과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로 분류하였으나, <표 2>에 나타난 5집단의 가족구조로 재분류하였다. 조부모-손자녀가족과 다른 가족구조에서의 아동 발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를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5개의 가족구조는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양부모가족을 포함한 양부모가족, 친족/시설, 한부모가족, 그리고 조부모 중 적어도 한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3. 연구절차와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4년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1개반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아동용 설문지를 일차 수집하여 아동의 응답을 토대로 가족구조를 확인한 후 대상을 재선정하고 담임교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였고, 가족구조와 과목별 수행정도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가족구조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Scheffe 검정을 이용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족구조와 성별 그리고 학년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일변량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구조와 아동의 교과목 수행능력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교과목 중 수학, 과학, 국어에 대한 수행정도의 비율과 분석결과가 <표 3>에서 <표 5>까지에 걸쳐 제시되었다. 각 과목의 수행정도는 가족구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학과목을 살펴보았을 때, 수학 수행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상위 5%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이 21.6%로 제일 높았고,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는 2.8%로 제일 낮았다. 수학 수행능력이 매우 심각한 하위 5% 이하에도 역시 한부모 가족의 아동이 8.3%로 다른 가족구조 집단의 아동들이 보이는 0에서 1.4%보다 거의 6배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수학 수행의 상위 15%를 차지하는 비율로 가족구조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양부모가족의 아동의 43.8%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 39.2%,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 34.6%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16.7%만이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위 15%의 비율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다른 가족구조 집단의 아동들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인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친족보호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인 5.6%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3배나 높았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학 수행능력의 상위 5%를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가족구조 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비율이 20%로 제일 높았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3%미만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족이나 조부모-손자녀가족 그리고 친족보호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13% 정도 내외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하위 5%의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가족구조 집단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과학에서 상위 15%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양부모 가족, 조부모-손자녀가족, 그리고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비율이 40.9%에서 36%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부모가족 아동이 11.5%, 친족보호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25%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위 15%를 구성하는 비율 역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서 제일 높았다.

상위 5%에 해당하는 가족구조 집단별 아동의 국어 수행능력 비율을 살펴보면, 조부모와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4분의 1 이상인 25.5%를 보이고 있으나 한부모가족 아동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마찬가지로 하위 5%에 속하는 비율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표 5>참조).

국어 수행능력이 상위 85% 이상이라고 평가받은 아동의 비율은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45.1%, 양부모가족 43.9%, 그리고 조부모가족 42.3%의 순이었으나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었다. 수학이나 과학과 달리 국어에서는 친족보호와 시설거주 아동의 비율이 27.8%로 제일 낮았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은 33.3%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위 15%의 비율은 친족보호와 시설거주 아동의 비율이 11.1%였고 그 다음이 5.6%인 한부모가족 아동의 비율이었다. 다른 가족구조 집단 아동의 비율은 2%내외에 머물러 있었다.

수학, 과학 그리고 국어 교과목별 수행능력을 살펴본 결과, 세과목 모두 가족구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이 잘한다는 평가는 제일 낮은 비율을, 못한다는 평가는 제일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에서는 친족보호나 시설거주 아동의 비율이 다른 가족구조 집단과 비교하여 잘한다는 비율이 낮았고, 못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학업성적이 양부모가족 아동의 성적과 비슷하다는 선행연구결과(Solomon & Marx, 1995)를 지지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Sawyer와 Dubowitz(1994)가 제시한 친족보호 아동들의 성적이 수학, 과학, 국어에서 매우 저조하다는 연구결과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보호를 받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수학과 과학에서 한부모가족 아동보다 더 잘한다고 평가받았다.

<표 3> 가족구조 집단별 아동의 수학 수행정도 교차분석결과 (빈도와 백분율)

(N=617)

가족구조 (N)	수행정도						
	5%이하	6-14%	15-29%	30-69%	70-84%	85-94%	95%이상
조부모 (78)	1(1.3)	2(2.6)	8(10.3)	21(26.9)	19(24.4)	17(21.8)	10(12.8)
양부모 (434)	6(1.4)	9(2.1)	18(4.1)	99(22.8)	112(25.8)	117(27.0)	73(16.8)
친족/시설(18)	0(.0)	1(5.6)	3(16.7)	6(33.3)	3(16.7)	3(16.7)	2(11.1)
한부모 (36)	3(8.3)	3(8.3)	3(8.3)	9(25.0)	12(33.3)	5(13.9)	1(2.8)
한부모와 조부모 (51)	0(.0)	2(3.9)	4(7.8)	12(23.5)	13(25.5)	9(17.6)	11(21.6)

 $\chi^2 = 38.97 (p < .05)$

<표 4> 가족구조 집단별 아동의 과학 수행정도 교차분석결과 (빈도와 백분율)

(N=591)

가족구조 (N)	수행정도						
	5%이하	6-14%	15-29%	30-69%	70-84%	85-94%	95%이상
조부모 (77)	1(1.3)	1(1.3)	9(11.7)	15(19.5)	22(28.6)	19(24.7)	10(13.0)
양부모 (413)	5(1.2)	8(1.9)	10(2.4)	101(24.5)	120(29.1)	112(27.1)	57(13.8)
친족/시설(16)	0(.0)	0(.0)	1(6.3)	7(43.8)	4(25.0)	2(12.5)	2(12.5)
한부모 (35)	2(5.7)	1(2.9)	5(14.3)	8(22.9)	15(42.9)	3(8.6)	1(2.9)
한부모와 조부모 (50)	0(.0)	0(.0)	2(4.0)	20(40.0)	10(20.0)	8(16.0)	10(20.0)

 $\chi^2 = 50.72 (p < .001)$

<표 5> 가족구조 집단별 아동의 국어 수행정도 교차분석결과 (빈도와 백분율)

(N=616)

가족구조 (N)	수행정도						
	5%이하	6-14%	15-29%	30-69%	70-84%	85-94%	95%이상
조부모 (78)	1(1.3)	1(1.3)	5(6.4)	15(19.2)	23(29.5)	20(25.6)	13(16.7)
양부모 (433)	5(1.2)	4(.9)	12(2.8)	80(18.5)	142(32.8)	113(26.1)	77(17.8)
친족/시설(18)	0(.0)	2(11.1)	0(.0)	6(33.3)	5(27.8)	3(16.7)	2(11.1)
한부모 (36)	2(5.6)	0(.0)	4(11.1)	11(30.6)	7(19.4)	12(33.3)	(.0)
한부모와 조부모 (51)	1(2.0)	0(.0)	0(.0)	13(25.5)	14(27.5)	10(19.6)	13(25.5)

 $\chi^2 = 50.98(p < .001)$

2. 가족구조와 아동의 학교생활

아동의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습습관 및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구조 집단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생활 중 아동의 학업성적, 교우관계 그리고 학습습관은 가족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행동에서는 가족구조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6> 가족구조별 아동의 학교생활 일원변량분석결과

가족구조	학교생활			
	학업성적 (N=589)	교우관계 (N=553)	학습습관 (N=553)	문제행동 (N=551)
조부모-손자녀	15.04(3.80)	13.25(3.54)	13.09(3.95)	12.76(5.10)
양부모	15.60(3.50) ^a	14.17(3.45)	14.32(3.76) ^a	11.47(4.36)
친족/시설	14.19(3.47)	12.33(4.11)	11.83(4.00)	12.72(6.55)
한부모	13.03(4.01) ^b	12.47(3.92)	11.75(4.27) ^b	12.44(4.58)
한부모/조부모	15.54(3.63) ^a	13.22(2.94)	13.00(4.10)	12.27(5.05)
F	4.75**	4.19*	6.96**	1.91

* p < .01 ** p < .001

학업성적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성적이 양부모가족이나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습습관은 양부모가족 아동의 학습습관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우관계에서는 특정 집단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은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습습관에서 양부모가족 아동의 점수보다는 낮았지만 친족보호나 시설거주 혹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점수보다는 높았다. 교우관계나 학습습관에서는 조부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점수와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Solomon & Marx, 1996)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성적이 양부모가족의 아동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지만, 한부모가족의 아동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는 지지하지 않는다. Dubowitz와 Sawyer(1994)의 연구에서는 친족보호 아동의 학습습관이 또래들보다 더 나쁘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지지하지 않는다.

3. 성별에 따른 가족구조와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족구조와 학교생활적응이 차이를 보이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아동의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습습

관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아동의 성별로 구분하여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가족구조와 성별이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7> 남학생(N=304)의 가족구조와 학교생활 평균(표준편차)

가족구조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습습관	문제행동
조부모-손자녀	13.87 (3.99)	12.61 (3.81)	12.05 (3.80)	13.46 (5.26)
양부모	15.49 (3.67)	13.74 (3.44)	13.42 (3.78)	12.63 (4.55)
친족/시설	12.9 (2.77)	11.42 (2.97)	11.00 (3.13)	14.67 (6.81)
한부모	13.93 (3.73)	13.38 (3.67)	10.44 (4.21)	13.50 (5.03)
한부모와 조부모	15.07 (3.32)	12.82 (3.07)	11.75 (4.12)	13.50 (4.75)

<표 8> 여학생(N=318)의 가족구조와 학교생활 평균(표준편차)

가족구조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습습관	문제행동
조부모-손자녀	16.24 (3.21)	13.95 (3.11)	14.21 (3.84)	12.00 (4.88)
양부모	15.69 (3.36)	14.17 (3.42)	15.14 (3.55)	10.45 (3.93)
친족/시설	17.00 (3.39)	14.17 (5.67)	13.50 (5.28)	8.83 (4.07)
한부모	12.35 (4.17)	11.75 (4.05)	12.80 (4.12)	11.60 (4.11)
한부모와 조부모	16.14 (3.99)	13.70 (2.77)	14.52 (3.62)	10.78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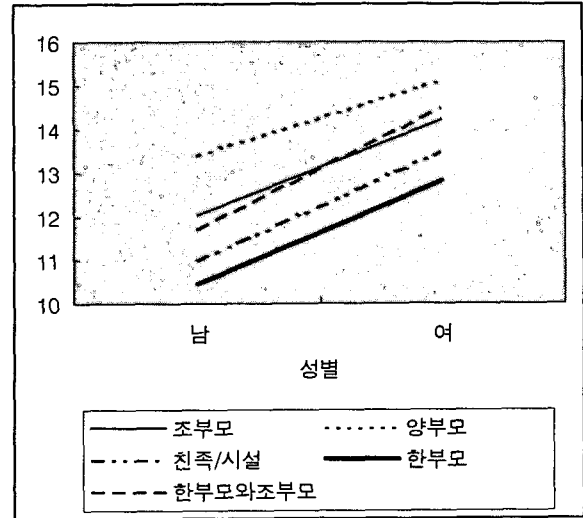
<표 9>에 제시된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아동의 학업성적, 학습습관 그리고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는 가족구조와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1>을 통해서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한부모가족 아동을 제외한 다른 4개의 가족의 아동들에게서는 여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았으나 한부모가족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학업성적이 더 낮았기 때문에 학업성적에서 가족구조와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9> 가족구조와 성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이원변량분석표

학교생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학업	가족구조	203.348	4	50.837	4.03**
	성	68.352	1	68.352	5.41*
성적	가족구조	161.582	4	40.395	3.20**
	가족구조 x 성				
교우	가족구조	158.106	4	39.526	3.33**
	성	34.460	1	34.460	2.91
관계	가족구조	73.299	4	18.325	1.55
	가족구조 x 성				
학습	가족구조	364.536	4	91.134	6.53***
	성	264.640	1	264.640	18.98***
습관	가족구조	17.500	4	4.375	.31
	가족구조 x 성				
문제	가족구조	123.572	4	30.893	1.54
	성	395.478	1	395.478	19.73***
행동	가족구조	67.772	4	16.943	.85
	가족구조 x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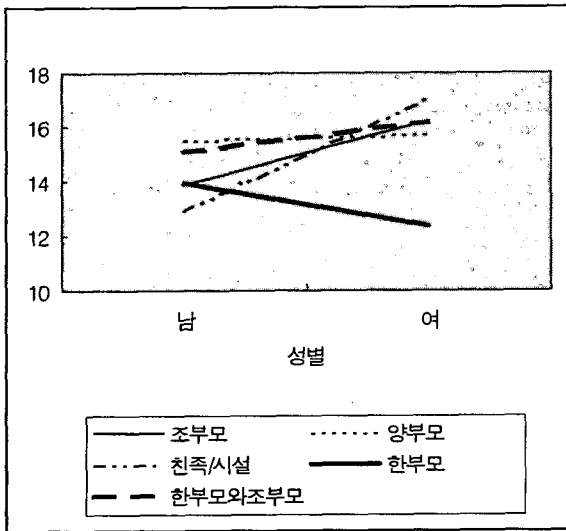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Dubowitz와 Sawyer(1994)의 연구결과나 Solomon과 Marx(1995)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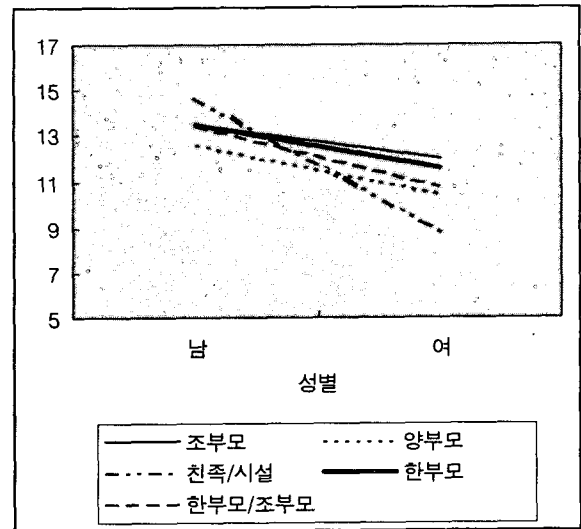
<그림 2> 성과 가족구조에 따른 학습습관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족구조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보호나 시설거주 아동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른 집단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더 큰 것을 <그림 3>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족구조와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문제행동을 덜 일으킨다는 Dubowitz와 Sawyer(1994)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림 1> 성과 가족구조에 따른 학업성적

학습습관은 가족구조와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두 변인 모두에서 가족구조와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여학생들의 학습습관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을 <그림 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변화의 기울기는 모든 가족구조 집단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그림 3> 성과 가족구조에 따른 문제행동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과목별 수행도와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볼 수 있는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습습관 및 문제행동이 다른 가족구조 집단의 아동과 비교하여 차이를 나타내는지 또한 성별과 가족구조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학생 622명(남: 304명, 녀: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은 다른 가족구조 집단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과목별 수행도나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습습관 그리고 문제행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과목별 수행도와 학업성적, 교우관계 그리고 학습습관은 가족구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학업성적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이 양부모가족이나 조부모와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습습관에서도 한부모가족 아동의 점수는 양부모가족 아동의 점수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조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았을 때, 학업성적, 학습습관 그리고 문제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에서는 가족구조와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학업성적과 학습습관에서는 더 나은 점수를 보였으며, 문제행동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부모 없이 조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조부모-손자녀가족의 비율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아동의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주 관심대상이 많이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한다면 조부모-손자녀가족의 비율은 예상보다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5학년 학생들의 경우 본인이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감안한다면 실제 비율보다는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들은 다른 가족구조 집단의 또래들과 비교하여 학교생활에서 교사들로부터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들의 발달이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는(Jones & Hansen, 1996; Pruchno, 1999; Silverstain & Vehvilainen, 1999)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본 연구결과는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이 양부모가족 아동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Solomon & Marx, 1995) 지지한다. 실제 교육현장으로부터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들이 학교생활이나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동들은 문제를 가질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정이나 편견에서 현실이 왜곡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조부모-손자녀가족이 아동발달을 위해서는 부모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다른 형태의 보호보다는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발달을 다룰 때 가족구조의 형태가 아닌 가족구성원간의 특성이나 관계의 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보호형태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과제로 남는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가족구조는 조부모-손자녀가족이 아닌 한부모가족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Kellam, Ensminger & Turner, 1977; Solomon & Marx, 1995) 대해서 향후 더 깊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업성적과 학습습관이 양부모가족 아동과 비교할 때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업성적과 학습습관 향상을 위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구성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즉 부모와 아동만이 살고 있는 2세대 한부모가족과 조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과 살고 있는 3세대 한부모가족의 아동발달은 학업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목별 수행도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조부모와의 동거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의 학업성적과 교우관계, 문제행동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학업성적에서는 가족구조와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결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보호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보호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한부모가족 여아의 학업성적에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추후연구를 통하여 그 경향이 확인되고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후속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은 다른 집단의 아동과 비교하여 학교생활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한부모가족 아동은 학업성적에서는 양부모가족이나 조부모와 거주하는 한부모가족보다는 유의하게 낮고, 학습습관에서도 양부모가족보다 유의하게 좋지 않았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업성적과 학습습관,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들이 더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학업성적에서는 가족구조와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의 지역적 거주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연령 또한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에 한정되어 있음은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지니는 한계라고 하겠다. 다양한 지역과 대상으로 확대되고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을 다루는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5년 05월 14일

□ 심사 일 : 2005년 07월 26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8월 12일

【참 고 문 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대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미영(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명숙(1999).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지혜(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섭(1999). 손자녀 양육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4, 69-80.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4.
- 최해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통계청(2002). 통계자료: 시도/세대구성/아동보육상태별 아동수. 서울: 통계청.
- Berrick, J. D., Barth, R. P. & Needell, B.(1994). A comparison of kinship foster homes and foster family homes: Implications for kinship foster care as family preserv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33-63.
- Bowers, B. F. & Myers, B. J.(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Dannison, L. & Smith, A.(2003). Custodial grandparents community support program: Lesson learned. *Children & Schools*, 25(2), 87-95.
- de Toledo, S. & Brown, D. E.(1995). *Grandparents as parents: A survival guide for raising a second family*. New York: Guilford.
- Dubowitz, H., Feigleman, S., Harrington, D., Starr, R., Zuravin, S. & Sawyer, R.(1994). Children in kinship care: How do they f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85-106.
- Dubowitz, H. & Sawyer, R.(1994). School behavior of children in kinship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18(11), 899-911.
- Edwards, O. W.(1998). Helping grandkin-grand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Expand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2), 173-181.
- Glass, J. C. & Huneycutt, T. L.(2002). Grandparents parenting grandchildren: Extent of situations, issues involved,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8, 139-161.
- Goodman, C. & Silverstein, M.(2002).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Family structure and well-being in culturally diverse families. *The Gerontologist*, 42(5), 676-689.
- Inglehart, A.(1994). Kinship foster care: Placement services and outcome issu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107-127.
- Jones, R. & Hansen, C.(1996). *Caregiving behaviors which predict adjustments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Ontario, Canada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09 986).
- Kellam, S. G., Ensminger, M. E. & Turner, J.(1977). Family structure and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 1012-1022.
- Kropf, N. P. & Burnette, D.(2003). Grandparents as family caregivers: Lessons for intergenerational education. *Educational Gerontology*, 29, 361-372.
- Leslie, L. K., Landsverk, J., Horton, M. B., Ganger, W. & Newton, R. R.(2000). The heterogeneity of children and their experiences in kinship care. *Child Welfare*, 79, 315-334.
- Pruchno, R. A.(1999). Raising grandchildren: The experience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The Gerontologist*, 39, 209-221.
- Sawyer, R. & Dubowitz, H.(1994).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in kinship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18, 587-597.
- Silverstain, N. M. & Vehvilainen, L.(1999). *Grandparents and schools: Issues and potential challenges*. In C. B. Cox(Ed.), *To grandmotehr's house we go*

- and stay: Perspectives on custodial grandparents (pp. 268-282). New York: Springer.
- Smith, A., Dannison, L. & Vacha-Haase, R.(1998). When 'grandma' is "mom": What today's teachers need to know. *Childhood Education, 75(1)*, 12-16.
- Solomon, J. C. & Marx, J.(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Gerontologist, 35(3)*, 386-394.
- Waldrop, D. P. & Weber, J. A.(2001). From grandparent to caregiver: The stress and satisfaction of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Society, 82(5)*, 461-472.
- Walker, H. M. & McConnell, S. R.(1988). *The Walker-McConnell Scale of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 Austin, TX: PRO-ED.